

한국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 고찰(2)* :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김 병 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박 경 란***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곽 정 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 요 약 》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學史的) 논의를 통해 다음의 세 갈래에 걸쳐 주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로, 이 기간 동안의 저술로는 「표준수화사전」(1982, 편찬위원장: 정택영)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편찬되고, 90년대 초반에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당시회장: 김완)에서 의료·교육·복지를 아울러 「청각장애편람」(1992)을 펴낸 것을 주요성으로 들 수 있다. 역서로는 80년대 초중반에 「토틸 커뮤니케이션」(김병하, 1984)이 번역·소개되고 그 후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1989)에서 TC 접근이 공식 도입되어 주목할 만하다. 둘째로, 이 기간 동안에 청각장애교육 분야 박사학위 논문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개인의 연구역량이 제고됨은 물론, 청각장애교육 전공분야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아 가기 시작했다. 끝으로, 이 시기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풍적 성향을 보면, 여전히 청각장애아의 의사소통 기능면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반면에, 학교교육의 핵심과제인 교과교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한 면이 있었다. 또, 연구 방법 면에서 기술적(記述的) 분석과 계량적 기법에 주로 의존한 나머지 종단적·질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주제어 : 청각장애교육연구, 학사적(學史的), 학위논문

* 이 연구는 2010학년도 대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것임.

** 제1저자(kimha@daegu.ac.kr)

*** 교신저자(kyoungghan@hanmail.net)

I. 서론: 문제의 제기

이 연구는 ‘한국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 고찰(1): 1970년대까지’ (김병하, 박경란, 2010)의 후속연구로,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를 학사적(學史的)으로 논의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간행된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2009)에서는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5단계로 대별해 전사(前史)와 준비기를 거쳐 1909년부터 광복이전까지를 성립기로, 광복이후에서 특수교육진흥법 제정까지를 전개기, 특수교육진흥법 발효(1979)이후부터 2009년까지를 농교육의 변화와 정체성 혼란기로 시대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학사적(學史的) 관점에서 본 한국청각장애교육 연구의 시대구분은 연구 성과의 종별과 전체 분량에 비추어 편년사(編年史) 중심으로 (1) 19세기 말에서 1970년대 말까지, (2)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3) 1990년대 중반이후 등으로 대별한다. 본 연구는 그 두 번째 단계로서 이 시기는 청각장애교육이 대학과 대학원과정에서 하나의 전공영역으로 정착되어가는 때이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청각장애교육 분야의 전문도서와 저술과 번역으로 그 종별이 늘어나고, 특히 80년대 초반부터 이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들이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연구의 활성화가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청각장애교육 분야의 박사 배출과 더불어 대학에서 청각장애교육 전공 학자 집단이 점차 견고히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편, 현장에서 농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전체 특수학교 중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농학교가 약 28% 정도 차지했으나 지금은 약 11%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청각장애교육이 전체 특수교육 구성분포에서 마이너리티 그룹으로 축소되어가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각장애교육 분야는 그 특수성이 대단히 강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갈등적 쟁점(이를테면 구화와 수화 간의 갈등, 인공와우 이식수술에 대한 찬반론 등)은 여전히 이 분야의 연구열을 계속 자극한다.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변천에 대한 총괄적 분석은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2009)에서 김승국과 김응범(2009)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계량적인 내용분석 중심으로 김승국(1997), 이한선, 옥정달, 김병하(2004), 박경란(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다룬 주제별 계량적 분석과는 달리, 다음 세 측면에서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學史的)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로,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저서와 번역서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동향을 밝힌다.

둘째로,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 (박사)학위논문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 동향과 그 성과를 밝힌다.

셋째로, 위의 기간 동안 수행된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풍적 성향과 그 과제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II. 저서와 역서 중심의 학사적(學史的) 논의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교육 분야 저서는 「구화교육」(최병문, 1970)과 청각학적 측면의 「청각교육」(이규식, 백준기, 권요한, 1977)이 소개되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청각장애아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교육접근에 앞서 구화와 청각재활이라는 특정 부면에 우선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그만큼 당대에 청각장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런 학풍적 상황에서 김병하는 Gallaudet University에서 1년간 객원연구교수(1981-82) 생활을 통해 얻은 체험을 바탕으로 영국의 Lionel Evans 박사가 Gallaudet 대학 초빙교수(1980-1981)로 있으면서 연구보고서로 정리한 「Total Communication: Structure and Strategy」(1982)를 우리나라에서 「토털 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전략」(1984)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Evans의 이 저서는 이웃 일본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소개·번역됨으로써 80년대 초반에 Total Communication 접근은 세계 농교육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넣었다. 이 책의 역자 서문에서 김병하(1984)는 TC 접근의 농교육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농교육의 실천과정에서 교사들이 체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선 교수-학습활동을 의미 있게 하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교사-학생 간에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 (중략) 토털 커뮤니케이션은 특정의 제한된 커뮤니케이션 양식으로부터 농인을 해방 시킴으로서 그들에게 가장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언어양식을 존중하자는 농인을 위한 권리선언이기도 하다. 농교육에 있어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은 종래에 강조되어 온 구화 일변도주의에 대한 이반(離反)으로 제기되고 있다(김병하, 1984, p.7).

위에서 TC 접근을 ‘구화일변도주의’에 대한 이반(離反)으로 규정했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농교육계에서 하나의 ‘주의’(ism)로서 구화중심이 강조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교육목표에서 종래에는 ‘장애 극복 의지

와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강조하면서 주로 구화 중심의 청각재활을 강조해 왔으나, 1989년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청각장애학생들의 의사소통 기능 향상을 위해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도입한 것”(김병하, 2009, p.205)이 하나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보기에 TC 접근은 그것의 철학적(이념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과정에서 동시법(simultaneous method)의 변종(變種)으로 인식됨에 따라 농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편, 1980년대에 접어들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금옥(金玉)학술문화재단의 지원으로 표준수화사전편찬위원회(위원장: 당시 서울농아학교교장 정택영)를 구성하여 「표준수화사전」(1982)을 편찬·간행하였다. 이 수화사전의 편찬을 위해 1979년부터 서울농아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농아학교, 대구영화학교와 대구대 특수교육연구소가 협력하여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이 사전에는 조사와 어미활용을 포함하여 5,700여 어휘에 대한 사인(sign)을 통일해서 제정했으며, 그 분량은 모두 1,400여 쪽에 달하고 있다. 이 사전의 편집위원으로 서울농아학교를 중심으로 이선호, 김진, 김삼찬, 주신기, 김기범, 최광식 등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도 우리나라 청각장애아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언어지도에서 구어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한국구화학교에서 최참도(1979)는 「청능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펴내어 현장에서 청각장애아를 위해 청능훈련을 통한 구어능력 신장을 강조한 이래, 서울애화학교 이호자(1984) 교장은 「청각장애아를 위한 언어지도의 이론과 실제: 발어·발음지도(1)」를 펴냈다. 이 책에서 이호자 교장은 청각장애 유아기의 발어·발음지도를 중시하면서 “현실적 입장에서 언어 면에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정작 필요한 어린이의 정의적(情意的)인 면은 간과함을 반성”(이호자, 1984, 저자 머리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농교육 현장에서 부모들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구어지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일면 이것이 청각장애아동 당사자의 정의적 발달 면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에 와서 언어장애아의 언어치료학적 접근에 새로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언어병리학 분야에서 석사과정을 공부한 권도하(權道河; 현재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가 중심이 되어 이규식과 공역(共譯)으로 Van Riper의 「Speech Correction」을 번역하여 「언어치료학」(1982)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역서에서는 언어장애를 언어발달장애, 조음장애, 음성장애, 말더듬, 기질언어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대별하여 제시하면서 말미에 전문직으로서 언어병리학과 언어치료사 양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 권도하는 이규식과 함께 역시 Van Riper와 Emerick의 「언어치료학개론」(1987)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 언어병리학(speech pathology)으로 일컬어지던 학문을 우리나라에서 ‘언어치료학’이라는 용어로 소개한 것은 그 후 언어치료학과의 탄생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미국에서 Gallaudet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강주해 목사는 우리나라에서 농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1989)라는 저술을 통해 농세계와 농문화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였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누어 1부는 ‘농아인 대 일반인’으로 이것은 일반인의 농인에 대한 무지나 편견을 불식하기 위함이고, 2부는 ‘농아인 대 농아인’으로 농인 스스로의 자존성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기독교 신앙 대 농아인’으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농인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책방에 가보면 농아와 관련이 있는 책을 구경하기가 힘든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 (중략) 이 책은 농아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고질적인 선입관이나 편견을 지닌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농아인의 참 모습과 저력을 보여주고 농아인에게는 청각장애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제시해 주는 것이 나의 집필 목적이다(강주해, 1989, p.7).

농세계의 당사자로서 농인 문제가 일반인의 주목을 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일반인의 농인에 대한 고질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농인의 참 모습과 저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자신의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조경건 (Steven Cho) 박사는 강주해 목사에 앞서 우리나라 농인으로는 최초로 Gallaudet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다. 그는 모교인 Gallaudet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지금은 명예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강주해 목사가 강조하는 농인의 저력을 입증해 준 대표적 사례로 조경건 박사를 꼽을 수 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청각장애아교육에 대한 개론서가 선보이게 된다. 대구대에서 이 분야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원영조, 이규식, 김병하, 석동일 등의 공저로 「청각장애아교육」(1990)이 집필되었다. 이 책에서 김병하는 청각장애의 개념, 청각장애아교육의 역사, 한국의 청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와 인지 발달, 청각장애와 인성발달을 집필하였고, 이규식은 청각장애의 원인, 청각장애유아의 취학전교육, 농중복장애아의 교육을, 원영조와 석동일은 청각장애아와 가정, 청각장애아의 언어발달과 지도를 각각 집필하였다. 이 저서는 90년대에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기본교재로 두루 활용되었으며, 이 책에 이어 김승국, 김영옥, 황도순, 정인호 등에 의해 「청각장애아동교육」(1998)에 대한 개론서가 새로이 간행되었다.¹⁾

한편, 청각장애자복지회(회장: 김완)에서는 의학, 교육, 복지 등을 총괄하여 「청각장애편람」(1992)이라는 책을 편찬해 냈다. 이 책의 전체구성과 집필자를 보면, 총론은 김승국, 의학부문은 노관택, 교육부문에서 청각장애아교육의 역사, 청각장애와 발달, 교육과정과 지도방법은 김병하가, 청각교육, 언어지도, 부모교육은 이규식, 청각장애아 교육기관은 김영순이 각각 분담했고, 청각장애인의 사회와 문화는 김기범, 김삼찬, 김장현, 김천환, 김홍규, 이선호, 주신기 등이 참여했고, 청각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최현, 청각장애인의 복지제도는 김승국이 분담해서 각각 집필하였다. 이 책은 일종의 편람(handbook)으로 부록을 포함해서 891쪽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농(deafness)의 문제는 곧 언어(language)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김병하, 강창욱, 최영주는 「청각장애와 언어」(1994)를 편역 형식으로 간행했다. 이 책의 내용 중 인지와 언어, 1차 언어발달, 읽기와 문어는 Quigley와 Paul(1984)의 「언어와 농(Language and Deafness)」를 번역한 것이고, 한국 농아동의 문해능력에서 읽기는 최영주가, 쓰기는 강창욱(현재 강남대 특수교육과 교수)이 연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 ‘언어능력과 교육과정’은 Johnson, Liddell, Earting(1989)이 보고한 ‘Unlocking the Curriculum: Principles for achieving access in deaf education’ 논문을 완역한 것이다. 이 논문은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불어, 독어, 미국수어(ASL)로도 번역되었으며, 후에 아시아권에서 일본, 태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2Bi(bilingual/biculture)라는 용어를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2Bi 접근의 기본 원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교육계에서는 청각장애아의 1차 언어로서 구어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어왔으나, 이 책에서는 농아동의 수어획득과 언어발달 양상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농아동의 읽기와 쓰기 문제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접근하였으며, 우리나라 농학생들의 읽기와 쓰기능력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후학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이규식, 석동일, 강수균, 김영옥, 김종현, 황도순(1993) 등은 「청각장애와 언어지도」를 공저 형식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은 언어지도의 개념, 언어지도의 기초(음성언어의 수용과 표현), 언어의 구성요소와 청각장애, 언어발달과 청각장애, 청각장애유아의 언어지도, 독화지도, 발성·발어지도, 수화지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지도에서 전반적으로 구어능력 발달과 그 지도에 크게 치중하고 있으며, 2차 언어로서 청각장애아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따로 다루고 있지 않은 점에서 위의 「청각장애와 언어」(김병하, 강창욱, 최영주, 1994)와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책의 서문에서 저자들은 “청각장애아 언어지도에서 ‘훈련’이라는 용어 대신 ‘학습’이라는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이규식 외 5인, 1993)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을 끌게 한다.

한국언어병리학회(당시회장: 이승환)에서는 언어치료 전문요원의 교육을 위한 교재로 「언어치료 전문인을 위한 청각학」(한국언어병리학회편, 1994)을 펴냈다. 이 책의 주요 주제와 집필자를 보면, 귀의 해부 및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김종선), 언어치료 전문인을 위한 음향음성학(이승환), 난청아동의 말소리, 언어, 심리 및 행동 특성(윤미선), 청력검사(김정주), 보청기(한옥희), 인공달팽이관 이식술(김희남), 달팽이관 수술후의 언어재활(이준자), 우리나라 농학교에서 청능훈련 과정(강순옥), 난청아동 말-언어치료의 이론과 실제(김영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을 끄

는 것은 90년대 중반 당시에 인공와우 이식술과 수술 후의 언어재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서 이준자는 ‘인공 달팽이관 수술 후 단계별 언어재활 프로그램’ (이준자, 1994, pp.147-159)을 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무렵 청각학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우리나라에서도 인공내이 이식술에 있어 놀라운 변화(인공와우 이식에서 1980년대에는 전국 판을 하나밖에 넣지 못했으나 1990년대에 이르러 22개를 넣을 수 있어 가청 주파수 범위를 훨씬 넓히게 되었음)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편, 이규식과 석동일(1995)은 「청능훈련의 이론과 실제」 (1995)를 펴냈다. 이 저서는 “청각장애아의 언어지도에서 어떤 지도방법이든 청능훈련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에서 1부에서 청능훈련의 이론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2부에서 보청기의 기본원리와 구조, 보청기 선택 절차와 착용 관리 등에 걸쳐 상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 무렵에 와서 우리나라 청각장애아교육에서 청각학과 의학과 하이테크놀로지의 결합에 의해 청각재활과 그에 따른 구어능력 신장에 크게 고무되어 있었음을 엿 볼 수 있다. 그에 비해 TC 접근이나 2Bi 접근은 여전히 외국 담론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곪돌면서 농교육 현장에 거의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 몇 가지의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로 전반적으로 청능훈련과 구화지도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이규식과 석동일의 저술활동이 돋보이고, 현장에서는 최참도(한국구화학교)와 이호자(서울애화학교 교장)의 기여가 돋보인다.

둘째로 그럼에도 1980년대에 접어들어 서울농아학교(당시 교장: 정택영)를 중심으로 수화지도의 체계화를 위해 「표준수화사전」 (1982)을 편찬한 것은 주요한 성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와 더불어 김병하(1984)는 우리나라에 토털커뮤니케이션 접근을 소개하여 1989년부터 농학교 교육과정 기준에 TC 접근을 반영하게 하고, 이어 1990년대 초에 Johnson 등(1989)의 논문을 통해 2Bi 접근 아이디어를 소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로 대학에서 청각장애 분야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청각장애아교육」 (원영조, 이규식, 김병하, 석동일, 1990)이 기본교재 성격으로 간행됨으로써, 초기에 이 분야 강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청각장애자복지회(당시회장: 김완)에서는 청각장애인의 의료적, 교육적, 복지적, 직업적 재활을 총체적으로 다룬 「청각장애편람」 (1992)을 간행하여 특히 종합복지의 차원에서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한층 제고하였다.

끝으로, 1980년대에 와서 권도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언어장애아의 문제가 외국의 언어병리학을 번역·소개하는 차원에서 ‘언어치료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90년대에 한국언어병리학회(당시 회장: 이승환)에서는 「언어치료 전문인을 위한 청각학」 (1994)를 간행하여 언어치료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위한 교재로 활용하기도 했다. 특히, 여기서 인공내이 이식술과 수술 후의 언어재활

문제를 다룬 것은 주목할 만하다.

Ⅲ. (학위)논문 중심의 학사적 논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각장애교육 학위논문들이 지속적으로 제출됨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일층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학풍적 성향도 좀 더 다양하게 형성 되기에 이른다. 여기서는 주로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청각장애교육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서, 일부 석사학위 논문이나 개별연구 성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을 제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김병하(1980)는 특수교육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 중심(competency-based)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김병하, 1977, 1979)의 연장선상에서 ‘청각장애교사의 전문능력 연구’를 박사학위(대구대)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competencies)을 교육기초, 심리적 측면, 언어·청각학, 교육과정 및 지도, 상담 및 생활지도, 언어·커뮤니케이션 기술, 매체와 특수기기, 행정적 책임 등 8개영역에 걸쳐 모두 65개의 수행능력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수행능력 목록은 현장사정(field-test)을 거쳐 그 중요도와 수행정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수행능력 중심의 특수교육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제시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하였다.

이어 김승국(1983)은 ‘한국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를 박사학위(성균관대) 논문으로 제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화의 기호구성 방법, 수화의 화소(話素), 품사, 통문화적 적응성 등을 분석하였다. 수화의 기호구성 방법은 지사(指事), 모방(模倣), 상형(象形), 형지(形指), 형동(形動), 회의(會意), 전주(轉注) 등으로 대별되며, 수화의 화소는 수형(手形), 수위(手位), 수동(手動), 수향(手向), 체동(體動) 등으로 분석되었다. 수화의 품사는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등으로 분류하였으며, 수화의 통문화적 적응성은 동형기호, 유사기호, 이형(異形)기호 등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인들이 사용하는 5,966개 사인 기호를 심리언어학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이후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자질 정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 연구를 모체로 김승국은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 추진위원장을 맡아 한국수화사전(2005)과 한국수화 문형사전(2007)의 발간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강순옥(1983)은 다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유아의 조기언어교육 프로그램 연구’(이화대 석사논문)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구화학교 청각장애

유아들을 대상으로 19개월간 청능·발어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자연스런 청능·발어훈련의 조기중재 효과를 입증하였고, 보청기 착용 효과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권요한(1987)은 ‘농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밝힌 박사학위(대구대) 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은 농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지발달 특성의 비교를 통해 농아동은 형식 조작적 추상성에 있어 일반아동에 비해 지체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농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구명하고 언어와 인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상호작용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농아동은 인지능력에 비해 학업성취도에서 많은 지체를 보이므로 교과별 성취수행과 관련된 특수 커리큘럼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했다. 권요한(1985)은 이 논문에 대한 선행 기초연구의 하나로 ‘언어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석동일(1989)은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대구대 박사논문)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한국 표준수화사전에 수록된 5,318개 어휘와 농성인과 농학교 교사들을 통해 입수한 어휘와 문장을 종합해서 음운론, 문법론, 어휘론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음성언어의 음소에 해당하는 수화소(手話素)로 수위(手位) 40개, 수형(手形) 44개, 수동(手動) 49개, 수향(手向) 12개를 확인하였다. 이어 수화의 문법론적 분석은 형태와 구문에 걸쳐, 어휘론적 분석은 단어의 품사와 구성에 걸쳐 각각 분석함으로써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자질을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학생의 독해능력 측정이 최영주(1990)에 의해 실시되었다. 농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기능 중 ‘독해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일반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중학부 3학년 상위 10% 학생들의 읽기능력이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인 것으로 밝혔다. 후에 장지희(1995)는 ‘청각장애학생의 읽기 하위기능의 특성’을 해독능력, 어휘능력, 통사능력, 선행지식, 추론능력 등에 걸쳐 분석한 결과 이들 하위기능 중 기본적으로 해독, 어휘, 통사능력이 중요하며, 이런 능력들은 선행지식과 추론능력과도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의 제언에서 장지희는 언어양식에 관계없이 청각장애학생들에게 1차 언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내재화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김중현(1991)은 박사학위 논문(대구대)에서 청각장애학생의 말읽기(독화) 기능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자모음 시지각 능력은 말읽기 기능을 구성하는 중요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종합능력 가운데는 추리력과 시지각 능력이 말읽기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한편, 김영옥(1992)은 맥락단서가 청각장애아동의 독화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본 결과, 통사구조의 단서나 화용적 맥락은 별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지 독화 단

서를 분석적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어 김영옥(1993)은 학위논문(단국대)에서 ‘청각장애아의 독화단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청각장애아의 독화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음운의 독화소를 알게 하고 독화소 내의 음운변별력을 길러주며, 독화의 제한성을 보충하기 위해 독화과제와 관련한 화용적 맥락, 화자의 표정, 손짓과 몸짓의 단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춘배(1989)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따른 청각장애학생의 언어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청각장애아의 언어수용에 있어 청각보다는 독화에 많이 의존하지만, 청각·독화보다는 수화·지문자를 통한 언어수용 능력이 높음이 확인되었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 박춘배는 청각장애아의 효율적인 언어수용을 위해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국미경(1993)은 학위논문(대구대)에서 청각장애유아에게 시각적 기기를 활용하여 모음과 자음의 발음안정을 위한 발음훈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그 효과가 인정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황도순(1994)은 학위논문(단국대)으로 ‘농학생 수화의 통사구조와 발달’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농학생의 수화 통사구조는 국어와 동일한 유형을 따르지만, 수화의 독특한 통사구조를 반영하는 혼성 국어식 수화(pigin sign Korean)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농학생의 통사구조가 단문에서 중문으로, 그에 따른 수화문의 길이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농학생들의 수화문 길이 발달은 일반아동의 문장길이 발달에 비해 매우 지체되고 있으며, 이는 농학생들이 수화에 노출된 시기가 늦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윤병천(1993)은 우리나라 농인의 사용수화 어휘빈도를 조사한 결과, 총 사용수화 어휘는 4,098어였고, 이어수화(異語手話; 수화어휘를 이루고 있는 수화소인 수위, 수형, 수향, 수동이 다른 단순수화와 복합수화를 지칭함)는 829어이며, 평균 빈도수는 4.94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 어휘 가운데 기존의 수화사전(2권)과 수화교본(11권)에 없는 수화어휘가 383어, 이어수화는 239어로 평균 빈도수는 1.60이어서 향후 수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그에 더한 수화사전 편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창옥은 ‘농학생 문장의 문법적 특징’ (1987)에 관심을 보인 이래, 박사학위(대구대, 1994) 논문에서 ‘청각장애학생 언어의 통사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 농학생의 생활문 3,995개 문장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단순문 구조보다는 복합문 구조를 점차 더 많이 쓰고, 접속문 구성이 특정 어미(‘-고’)에 의해 집중적으로 실현되고, 내포문 유형도 접속문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며, 일탈된 통사의 원인은 문법형태소(특히, 어미와 조사)의 일탈현상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강창옥은 청각장애학생 언어의 내재적 구조를 심층 분석하는 한편, 농교육에서 이중언어주의의 철학과 방법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외국에서 청각장애교육 분야 학위취득 논문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최성규(Ball State University, 1995)는 ‘Cross-cultural attitudes toward deaf culture in a multi- and singular cultural society: A survey of residential school based teachers for the deaf who are deaf and hearing’ 이라는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기숙제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농문화에 대한 통문화적(cross-cultural) 태도를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미국(multi-cultural society)에 비해 한국은 농문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이었지만 농문화는 주류사회에서 하나의 하위문화로 인식되었고, 농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일반학교 교사보다 농학교 교사들에 의해 더욱 긍정적으로 수용되었으나, 학교 급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위 2Bi 접근이 좀 더 친숙하게 소개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안성우(Ohio State University, 1996)는 ‘A study of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from context during natural reading in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라는 주제로 학위논문을 제출했다. 이 연구에서 청각장애학생은 읽기 맥락으로부터 어휘 의미를 학습하고,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어휘 학습은 더욱 용이하며, 상위읽기 능력의 학생일수록 단어 의미를 더 많이 학습하고, 각각의 검사 유형에서 우발적 어휘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의 읽기지도에 있어 일련의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이상에서 학위논문 중심으로 나타난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성을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전반적으로 청각장애아의 의사소통 기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으나, 종래처럼 구어지도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청각장애학생의 읽기와 쓰기 등 문어능력에 대한 관심 등에 걸쳐 두루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로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에 이어 2Bi 접근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박춘배(1989)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따른 언어수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가운데 청각장애아의 효율적인 언어수용을 위해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고 있으나, 90년대 중반에 접어들며 강창욱(1994)은 농교육에서 이중언어주의 철학과 방법이 적극 도입되어야 함을 제기했다. 이어 최성규(1995)는 농문화를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 교사들의 인식을 비교하는 가운데 2Bi 접근을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로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분석 연구가 김승국(1983)에 의해 추진된 이래, 석동일(1989)과 황도순(1994)에 의해 수화의 언어학적 자질에 대한 후속연구가 체계적으로 진전되었고, 윤병천(1993)은 우리나라 농인들의 사용수화 어휘빈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후에 수화사전 편찬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병하(1980)는 청각장애학생 교사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competencies)

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수행능력 중심 교사교육 모형을 소개·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며, 권요한(1987)은 농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구명하는 가운데, 그들은 인지능력에 비해 학업성취가 많이 지체되므로 교과별 성취수행에 따른 특수 커리큘럼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보면, 결국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서 청각장애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한 사람들은 모두 이 분야의 교수로서 경향 각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IV. 학풍적 성향과 그 평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청각장애교육 분야에 소위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고 나름의 학풍적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저서 부문에서는 70년대에 이어 여전히 청능훈련과 구화지도에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 8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청각학을 중심으로 이규식의 영향이 두드러졌고, 현장에서는 최참도(한국구화학교)와 이호자(서울애화학교)의 역할이 돋보인다. 그러는 중에도 김병하는 Gallaudet 대학 연구교수의 경험을 토대로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토털 커뮤니케이션 접근을 번역·소개하고, 그 뒤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기준(1989)에도 TC 접근이 공식적으로 반영되게 하였다. 한편, 서울농학교(당시교장: 정택영)가 중심이 되어 금옥학술재단의 지원으로 「표준수화사전」(1982)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편찬된 것은 농교육계의 쾌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농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주해 목사는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1989)라는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문화와 농의 정체성을 제기하였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현장과 학계가 구화일변도주의를 탈피하고 농인 당사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존중해야 한다는 각성의 반영이기도 했다.

이 무렵 대학 특수교육과와 대학원에서 청각장애교육전공이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대구대가 중심이 되어 「청각장애아교육」(원영조, 이규식, 김병하, 석동일, 1990)이 기본교재로 출판되었다. 이 책이 나오고 8년 뒤에 단국대 특수교육과가 중심이 되어 「청각장애아동교육」(김승국, 김영옥, 황도순, 정인호, 1998)이 개론서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청각장애자복지회(당시회장: 김완)에서는 의학, 교육, 복지적 측면을 총괄하여 「청각장애편람」(1992)을 간행하여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연구자들이 보기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 농교육계의 대표적 업적으로 「표준수화사전」(1982, 1400여 쪽 분량) 편찬을 든다면, 90년대

초중반까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이 「청각장애편람」(1992, 약 900여 쪽)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한편, 1980년대에 권도하가 중심이 되어 Van Riper의 ‘언어병리학’이 우리나라에 ‘언어치료학’이라는 이름으로 도입·소개되면서 종래의 농교육은 소위 ‘언어·청각장애’로 묶어 그 관심분야를 확충시켜 갔다. 이를테면, 이규식은 ‘한국재활과 학회’를 결성하여 「난청과 언어장애」라는 학술지를 진작부터 발행해 왔다. 그러나 대학에 ‘언어치료학’ 분야가 독립학과로 존립하면서 자연히 언어치료사 양성을 별도로 개발하게 되어 오히려 언어치료학의 입장에서는 의사소통장애의 한 하위분야로서 ‘청각장애’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여기에 농교육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청각장애’로 묶어 표기함으로써 전공의 지평이 훨씬 넓어지는 현실적 이점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연관해 묶음으로써 농교육의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청각재활을 강조하는 구화주의 입장에서는 언어병리학 내지는 언어치료학이 자신들의 학문적·실천적 기반을 넓히는 매력적인 터전일터이지만, 청각장애교육의 입장에서는 구화와 수화의 틈새에서 정체성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특수교육계 내부에서 조차 농교육은 마이너리티 그룹으로 그 위상이 잦아들고 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는 학위논문 발표와 더불어 청각장애교육 분야의 학문적 토대와 성향이 좀 더 다양하게 구축될 뿐만 아니라, 학위취득을 계기로 이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형성되고 그 속에서 개별적으로 나름의 색깔을 드러내게 된다. 80년대에 접어들며 김병하(1980)는 ‘청각장애아교사의 전문능력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에서 수행능력중심(competency-based) 교사교육론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김승국(1983)은 ‘한국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를 통해 수화의 언어학적 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런 인연으로 그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 후 권요한(1987)은 ‘농아동의 인지 특성’을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하였다. 석동일(1989)은 ‘한국수화의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수화의 언어학적 자질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후에 석동일과 권도하는 언어치료학과에서 우리나라 언어치료학회 발전과 언어치료사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90년대에 접어들어 김종현(1991)은 청각장애학생의 독화기능 하위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김영옥(1993)은 청각장애아의 독화단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두 사람은 청각장애아의 구화능력을 보조하는 독화능력과 그 지도에 기여하였다.

황도순(1994)은 ‘농학생 수화의 통사구조와 발달’을 통해 수화에 의거하여 농학생의 통사구조와 그 발달 양상을 구명하였고, 이에 앞서 강창욱(1987)은 생활문

중심으로 ‘농학생 문장의 문법적 특성’을 분석한 이래, 박사학위 논문(강창욱, 1994)에서 ‘청각장애학생의 통사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했다. 이들 논문은 언어학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청각장애학생들의 표현언어 특성을 한국 수화와 문어를 통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생산성이 돋보인다.

9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에서 농교육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최성규와 안성우는 각각 미국에서 청각장애교육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최성규(1995)는 농문화를 통문화적(cross-cultural) 태도 중심으로 미국과 한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비교분석하였고, 안성우(1996)는 오하이오대학의 Paul 교수 지도하에 청각장애아의 자연적 읽기사태 맥락에서 우발적 어휘학습 효과를 분석하였다. 최성규는 최근 한국청각장애교육학회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강창욱, 안성우와 더불어 세 사람은 학부에서부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수학하였고 풍부한 현장경험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학계에 그 중추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학풍적 성향에 비추어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연구의 주제의식에서 언어지도와 의사소통 기능 향상 등에 집중된 나머지 교과교육을 비롯한 교과내용 면을 지나치게 도외시해 왔다. 지금은 농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방법(how) 중심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라는 내용(what)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Lytle, and Rovins, 1997). 오늘날 농교육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교과교육의 실패로 귀착된다. 일찍이 Johnson, Liddell, Earting(1989) 등은 농교육의 실패 이유를 농아동에게 모어로서 1차 언어가 안정되게 획득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했지만, 마냥 농아동의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y)에만 목을 매고 있을 수는 없다. 문제는 개개 학생들에게 내축(內築)된 언어능력을 기반으로 교과담당 교사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얼마나 교과내용을 능숙하게 다루어 내느냐에 달려 있다. 교사에 의해 교과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경우에도 교과는 교과답게 다루어지지 못한다. 교과교육의 실패를 학생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둘째로, 연구 방법 면에서 분석적 기술(記述) 혹은 통계적 기법에 의한 양적 정보처리에 거의 의존하는 한편, 종단적(縱斷的)·질적(質的) 접근에 의한 연구들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김병하와 강창욱(1992)은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을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는 기법을 적용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단적’ 설계는 아니었다. 청각장애교육 연구에서 종단적 장기추적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지 못한 것은 단기적 업적을 위주로 삼는 우리나라 학계의 일반적 연구 풍토에 다분히 영향 받은 탓이기도 하다. 이런 학풍적 성향은 필연적으로 연구와 실천의 괴리를 야기하기 마련이고, 마침내는 현장과 학계 간의

동반자적 협동과 소통마저 소원하게 한다.

끝으로, 농과 농교육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고, 이런 전환에 따른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농(deafness)에 대한 기본관점은 듣지 못하는 것을 병리적 질병처럼 생각하는 의료적 접근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지금도 이과(耳科) 의사들은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를 지닌 사람을 ‘난청환자’로 명명(labeling)하는 것을 관행으로 삼는다. 그러나 농인들의 자기 정체성과 언어권을 강조하는 농학(deaf studies)의 관점에서 본 농(Deaf)은 결코 장애(handicap)가 아니라, 하나의 개성적 차이에 불과하다. 농교육에서 농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deaf epistemologies)의 문제는 결국 농교육의 성격이나 목적 설정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면에도 엄청난 차이를 야기하기 마련이다(Moores, 2010). 일찍이 공자(孔子)는 “교육에는 그 부류가 따로 없다”(有敎無類)고 했다. 모든 인간은 하늘의 지엄한 명령으로 품부(稟賦)된 심성(心性)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교육에서 인간 본성회복(심성함양)의 신비로운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 우리에게 농교육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교육으로 체현(體現)되어야 한다.

V. 결 론

필자는 1970년대까지의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學史的) 논의를 위해 19세기말 농교육의 도입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를 태동기로, 1960년대 말까지를 성립기로, 그리고 1970년대를 전개기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태동기-성립기-전개기에 이어 1980년대에서 90년대 중반까지를 본 연구에서는 ‘확충기’(擴充期)로 묶어 시대 구분하고자 한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교육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엄청나게 ‘확충’되어가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 동안에 청각장애교육 분야 박사학위 논문들이 계속 이어져 발표되면서 두 측면에서 학풍의 진작을 야기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개인의 연구역량이 제고됨은 물론 그 파급 효과도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다른 하나는 학위논문 발표와 더불어 청각장애교육 전공분야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 하나의 전공영역으로 위상을 확실히 굳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위논문에 쏟은 연구열정에 비해 그 후에 지속적으로 후속연구가 줄기 있게 축적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몇 가지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이 기간 동안에 개론서 외에 단독 저술로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보

이지 않으나 금옥학술재단 지원으로 「표준수화사전」(1982)이 편찬(위원장: 정택영)되고 90년대에는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당시회장: 김완)에서 의료·교육·복지를 아울러 노관택, 김승국, 이규식, 김병하, 김영순, 최현 등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청각장애편람」(1992)을 펴낸 것은 주요한 성과로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번역 부문에서는 80년대 초중반에 토털 커뮤니케이션이 소개·도입(김병하, 1984)되고, 이어 1989년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 그 동안의 구화일변도를 지양하고 청각장애학교에 TC접근이 반영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로, 이 기간 동안 학위논문 중심의 주요성과를 보면, 김승국(1983), 석동일(1989)은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자질을 분석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황도순(1994)은 수화를 중심으로, 강창욱(1994)은 문장 표현을 중심으로 청각장애학생의 통사구조와 그 발달 양상을 밝혀 우리나라 농교육에 기여하였다. 또한, 김종현(1991)은 청각장애학생의 독화력을 분석하였고, 김영옥(1993)은 독화단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독화지도에 기여하였다. 김병하(1980)는 청각장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수행능력(competencies)을 개발·평가하여 우리나라에 수행능력중심 교사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하였고, 권요한(1987)은 청각장애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구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특수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했다. 90년대 중반에 최성규(1995)와 안성우(1996)는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여 최성규는 우리나라에 2Bi 접근을 소개하고, 안성우는 청각장애아의 읽기능력을 개선하는 데에 각각 기여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모두 학사적(學史的) 측면에서 우리나라 청각장애교육 연구발전에 나름의 기여를 하였으며, 후학 양성에도 각각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왔거나 해오고 있다.

셋째로, 이 시기의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풍적 성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연구주제 측면에서 청각장애아의 의사소통 기능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인 반면에, 학교교육의 핵심과제인 교과교육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히 한 면이 있다. 연구방법에서는 기술적(記述的) 분석이나 계량적 기법에 지나치게 의존한 반면에, 종단적(장기적)연구나 질적 방법론에 의거한 심도 있는 연구가 빈약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deaf)을 보는 관점이나 인식에 있어 병리적 의료모델에 주로 영향을 받은 반면에, 사회·문화적 모델 혹은 농학(Deaf studies) 관점에서 본 연구나 문제 제기가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을 달리 보기 위해서는 렌즈를 바꿔 끼워야 한다.

1) 이 책에서 김승국은 서론, 청각장애아동교육의 발전과정, 청각장애의 영향, 수화와 지화, 진로직업교육을 집필하고, 김영옥은 청각생리와 청각장애의 원인, 청능훈련과 독화지도, 언어와 말하기지도, 황도순은 청각장애아동의 진단, 교육과정과 교수방법, 정인호는 읽기지도, 쓰기지도, 김승국과 김영옥은 청각장애인용 통신기기와 관련기기 등을 각각 분담 집필했다(김승국, 김영옥, 황도순, 정인호, 1998).

참고문헌

- 강순옥 (1983). 청각장애유아의 조기 언어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주해 (1989).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 서울: 창록사.
- 강창욱 (1993). 청각장애학생 언어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방법의 분석. **특수교육**, 14(2), 23-42.
- 강창욱 (1994). 청각장애학생 언어의 통사구조 분석.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국미경 (1993). 시각적 기기를 이용한 발음훈련이 청각장애유아의 자·모음 발음안정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권요한 (1987). 농아동의 인지적 특성.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병하, 이규식 (1977). 한국 청각장애아 교원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모형연구. **특수교육논총**. 한국특수교육학회 논문집, 1, 35-54.
- 김병하, 강영우 (1979). 한국 특수교육 교사양성제도 및 양성과정의 모형연구. **특수교육연구**. 한사대학특수교육연구소 정책과제.
- 김병하 (1980). 청각장애아 교사의 전문능력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사대학교 대학원.
- 김병하, 강창욱 (1992). 청각장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경험: 질적 분석과 해석. **특수교육 연구**, 19(1), 21-35.
- 김병하, 강창욱, 최영주 편저 (1994). **청각장애와 언어**.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 김병하, 박경란 (2010). 한국 청각장애교육 연구의 학사적 고찰: 1970년대 말까지.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1(1), 177-202.
- 김승국 (1983). 한국 수화의 심리언어학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김승국 (1997). 한국 특수교육연구의 변천.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6, 173-193.
- 김승국, 김영옥, 황도순, 정인호 (1998). **청각장애아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김영옥 (1992). 맥락 단서가 청각장애아동의 독화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1, 137-161.
- 김영옥 (1993). 청각장애아의 독화 단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종현 (1991). 말읽기(讀話) 기능의 구인 분석.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박춘배 (1989).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따른 청각장애아의 언어 수용 능력에 관한 연구. **특수 교육**, 10, 29-46.
- 석동일 (1989). 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분석. 박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원영조, 이규식, 김병하, 석동일 (1990). **청각장애아교육**. 대구대학교 출판부.
- 윤병천 (1993). 한국 청각장애자의 사용수화 어휘빈도 조사.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규식, 백준기, 권요한 (1987). **청각교육**. 대구: 배영출판사.
- 이규식 외 (1993). **청각장애아 언어지도**. 한국언어치료학회.
- 이규식, 석동일 (1995). **청능훈련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이한선, 옥정달, 김병하 (2004). 청각장애교육 관련 국내연구 현황분석.: 90년대 이후. **특수 교육저널: 이론과 실제**, 5(3), 181-202.

- 이호자 (1984). 청각장애아를 위한 **언어지도의 이론과 실제**-발음발어지도(I)-. 서울: 서울애화학교.
- 장지희 (1995). 청각장애 학생의 읽기 하위기능의 특성 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최영주 (1990). 청각장애 학생의 독해력 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최참도 (1979). **청능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구화학교 말한다 출판사.
- 표준수화사전편찬위원회 (1982). **표준수화사전**. 재단법인 금옥학술문화재단.
- 한국언어병리학회 (1994). 언어 장애의 이해와 치료. **언어치료 전문인을 위한 청각학 5**. 서울: 군자출판사.
-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1992). **한국청각장애편람**.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한국청각장애교육100주년 편찬위원회 (2009).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 한국청각장애교육 100주년기념 사업회.
- 황도순 (1994). 농학생 수화의 통사 구조와 발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Ahn, S. W. (1996). A study of incidental vocabulary learning from context during natural reading in student with hearing impairment. Ohio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Choi, S. K. (1995). Cross-cultural attitudes toward deaf culture in a multi- and singular cultural society: A survey of residential school based teachers for the deaf who are deaf and hearing. Ball State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Evans, L. (1982). *Total Communication*. 김병하 역 (1984). **토탈커뮤니케이션: 구조와 전략**. 서울: 제동문화사.
- Jonson, R. E., Liddell, S. K., & Erting, C. J. (1989). Unlocking the curriculum: Principles for achieving access in deaf education. Gallaudet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 Lytle, R. R., & Rovins, M. R. (1997). Reforming deaf education: A paradigm shift from how to teach to what to teach.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42(1), 7-15.
- Paul, P. V., & Quigley, S. P. (1984). *Language and Deafness*. San Diego, CA: Singular Publishing Group, Inc.
- Van Riper, C. (1978). *Speech Correction*. 이규식, 권도하 공역(1982). **언어치료학**. 서울: 학지사.
- Van Riper, C., & Emerick, L. (1982). *Speech Correction*. 이규식, 권도하 공역 (1987). **언어치료학개론**.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A Study on Scholastic History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in Korea(2)
: From the 1980s to the middle of the 1990s

Kim, Byung Ha

Daegu University

Park, Kyung Ran

Woosuk University

Kwak, Jeong Ran

Daegu University Docent

<Abstract>

This study drew following three main conclusions through discussing scholastic history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from the 1980s to the middle of the 1990s in Korea. First, “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1982) was compiled for the first time in writing area, and it can be given by a main outcome that the “Handbook of the hearing impairment” (1992) was published encompassing medical care, education, and welfare by Korean Society for the Hearing Impaired in an early stage in 1990s. Translated books such as “Total communication” (1984) are introduced, and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C approach applied formally by national standard of curriculum(1989).

Second, the study capacity of the individual was improved by continuously publishing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area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ment. Also the speciality of this field has begun to be placed surely by a university and a graduate school. Finally, when seeing academic tendency of education research for the hearing impairment in this time, most of researchers showed intensive interest to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whereas subject matter which is an essential task in education was neglected excessively. Also, in methodology of research, researchers depended more on a descriptive analysis and a

quantitative technique, but longitudinal and qualitative study was relatively weak.

Key Words

: study of education for the hearing impaired, scholastic history, doctoral dissertation

논문 접수: 2011. 05. 02 심사 시작: 2011. 05. 09 게재 확정: 2011. 06. 15